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모애착안정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Negative Behaviors and Children's Attachment Stability on Children's Aggression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박사과정 전주람**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김순옥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

Doctoral Course : Jun, Joo-Ram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essor : Kim, Soon-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nd provide the prevention method by examining the Effects of Maternal Negative Behaviors and Children's Attachment Stability on Children's Aggression. The subjects were 339 children of fifth or sixth graders in Seoul. The questionnaires were derived and modified from Young Ae Park (1995) for the maternal negative behavior, Children's attachment stability from Ok Jung (1998) and Children's aggression from In Sun Jung(2006).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by SPSS 14.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result showed there was average level of negative relationship when mother's negative behavior was compared with children's attachment whereas it showed average level of positive relationship in aggression. And also, low level of negative relationship showed between the attachment and aggression.

Second, studying the influence it gives to the children's reaction and aggression after adding the children, parent and the family's popular social variables into the maternal's negative behavior, the outcomes showed the maternal's discipline and defiance upbringing had influenced the highest and tolerance, negligence was second high.

This study mainly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negative behavior with the children's attachment and aggression, but not like the nations pre-studied results, changes in human relation were examined with identifying the main several factors that bring greatest influence to the children's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conclusion, the children's attachment and aggression's the cause of the children's attachment and aggression were mainly from the maternal discipline and defiance upbringing. Based on this conclusion, it is essential for the maternal to have a sound discipline with right minds for endeavor to bring up the children with bring minds with less aggression and composed attachment.

▲주요어(Key Words) : 제재·거부적 양육행동(restricting/rejecting maternal behaviors), 허용·방임적 양육행동(permissive/noninterfering maternal behaviors), 애착안정성(attachment stability),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

* 본 논문은 2008년도 성균관대학교 전주람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전주람 (E-mail : ramidream@skku.edu)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 생산수준의 향상, 다양한 사회 활동 및 정보화 시대로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로운 삶과는 반대로 우울증, 불안 및 소외감 등의 다양한 정신적 문제는 성인에서 아동에 이르기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아동기는 신체적, 심리적 및 인지적 발달과 함께 급격한 성장을 하는 시기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단계이며 따라서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사이 학교를 그만두는 초등학생이 10배로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을 대부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동아일보, 2006). 또 서울 시내 초·중·고교생 4명중 1명꼴로 행동장애와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7). 이처럼 최근 아동기의 문제는 보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점점 증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를 Achenbach와 Edelbrock (1983)은 내면화, 외면화 행동문제로 분류하였다. 내면화 행동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행동 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 두려움등의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뜻하며, 외면화 행동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몇몇 심리학자는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Bowlby는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인 관계의 표상은 어린시기에 완성되고 일생 동안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Freud는 구강기에 아기가 엄마의 태도에서 만족감, 안정감을 얻으면 엄마를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내적 확신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나아가 사회를 신뢰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때의 신뢰감 형성은 엄마의 보호, 양육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Erikson은 정서발달의 첫 단계인 어린이의 기본적 신뢰감은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며(송명자, 1995) 어머니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 심리학자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으며,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생후 초기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불안정한 애착의 형성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으며(Collins & Read, 1990),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하고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Cohn, 1990).

이를 볼 때 어린 시절 초기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는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의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Webster-Stratton & Herbert, 1994).

또한 아동발달의 기초가 되는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모가 수용적·애정적·자율적일 경우 아동은 능동적·사교적·창의적인 반면(Becker, 1964; 신금주, 1994),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거부적, 모순불일치적인 태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미, 1996), 또한 Eron (1982)은 공격적인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압적,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행동은 아동에게 공격행동의 모델로 작용될 뿐 아니라, 공격적 행동이 타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김숙형, 2004; 재인용). 그리고 부모가 과잉보호를 할 경우 아동은 의존적이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유안진·서봉연, 1982).

이를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아동의 문제행동 중 공격성은 Patterson, Babara, Debaryshe와 Ramsey(1989)에 의하면 초기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중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학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러 비정상적인 또래집단에 가입하게 되면서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김문정, 2003; 재인용). 즉 아동기의 문제는 지속성을 갖고 청소년기 이후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애착안정성이 아동의 행동적 특성 중 하나인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며, 특히 아동의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 안정성 및 공격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른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은 차이가

있는가?

[2-1] 아동변인(성별, 출생순위 및 종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부모변인(연령, 학력,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가족변인(가족형태,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1)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maternal negative behaviors)

본 연구에서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 제재·거부적 양육행동(restricting/rejecting behaviors)이란 아동에 대한 비난, 부정적 표현, 무시, 비하, 억압 및 침해적 개입이 포함된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허용·방임적 양육행동(permissive/noninterfering behaviors)이란, 아동에 대한 무책임, 무관심 및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2) 애착안정성 (attachment stability)

본 연구에서 애착안정성이란, 아동과 어머니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며 어머니가 아동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 편안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3) 공격성 (aggression)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되는데,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이란 공격대상으로부터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 및 방어하기 위한 공격성을 의미하며,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이란 아동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공격성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아동의 공격성은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청소년기 이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Patterson et al., 1989). 이러한 공격성과 애착안정성 및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변인들의 개념 및 유형

1)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개념 및 유형

양육행동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외 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Becker(1964)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으로서 자녀에 의해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이라고 하였으며, Fishbein과 Aizen(1975)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오성심, 이종승(1982)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부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남상인(1983)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박성연과 이숙(1990)은 양육행동을 부모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이동희(1995)는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기르고 가르치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도와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육행동 개념을 종합해보면,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데 있어 전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육행동의 유형은 크게 차원론적 접근(dimensional tradition)과 유형론적 접근(typological tradition)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다(Steinberg et al., 1994). 차원론적 접근은 양육행동의 상이한 차원들 또는 측면들을 분석하여 양육행동의 주요 원인들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형론적 접근은 자녀양육의 보편적인 방식, 유형 및 양육행동의 조직과 분위기 등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박영애, 1995).

최근에 와서는 차원론적 접근보다 유형론적 접근과 두 접근의 혼합·절충 형식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박영애, 1995). 즉, 부모의 양육행동을 몇 개의 차원에서 분류하여 각 차원에 대한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각 차원에 있어서의 행동 수준을 고려하여 이들을 서로 교차 결합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김문정, 2003).

차원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 Symonds(1949)는 처음으로 양육행동을 유형화하였으며, 수용-거부(acceptance-rejection)와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후에 두 개의 차원은 다시 수용은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는 소극적, 적극적 거부형, 지배는 기대와 엄격형, 복종은 맹종형과 익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 이론에 기초하여 임상사례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설명되어 정상적인 규준에 의거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이원영, 1983; 김

문정, 2003, 재인용).

한편,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두 개의 양극적 차원을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대별하여 양육행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Baumrind(1971)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권위주의적(authoritative), 권위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후에 Maccoby와 Martin(1983)은 Baumrind의 세 유형에 비요구적이고, 거부적이면서, 애정 없는 유형을 추가하여 권위주의적 유형(authoritative), 권위적 유형(authoritarian), 익애적 유형(indulgent), 그리고 방임적 유형(neglectful)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박성연(1989)은 대부분의 양육행동 연구에서 밝혀진 애정-적대, 자율-통제 외에 아동의 능력 발달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인 일관성 있는 규제, 참여의 적극성, 합리적 지도방법과 성취를 포함시켜, 애정-적대, 통제-허용, 과보호-자율, 일관성 있는 규제-일관성 없는 규제, 적극적-비적극적인 참여, 합리적-비합리적 지도, 성취-비성취의 7가지로 나누었다. 이후 박영애(1995)는 Schaefer(1959)의 두 차원인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를 기본틀로 애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위의 학자들의 양육행동 유형을 종합해보면, 양육행동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학자의 분류기준 중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재·거부적 양육행동(restricting/rejecting behaviors)은 아동에 대한 비난, 부정적 표현, 무시, 비하, 억압 및 침해적 개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허용·방임적 양육행동(permissive/noninterfering behaviors)은 아동에 대한 무책임, 무관심 및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행동을 포함한다.

2) 애착안정성의 개념 및 유형

Bowlby(1958)는 애착을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정의하고, 애착은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정서적으로 발달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Bowlby는 애착의 두 가지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아동과 양육자간의 애착의 질은 다양하며 둘째, 애착관계는 내면화, 표상화되기 때문에 초기 경험과 그에 따라 형성된 기대는 완전히 새로운 맥락이나 상황 및 사람과 관련해서도 행동과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은 자신이 받았던 보살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이 보이는 좌절이나 접촉 욕구에 대해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후 Ainsworth(1969)는 애착의 개념을 아동이 특정한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라고 정의하였으며, 아동으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탐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Ainsworth et al., 1978; Sroufe & Waters, 1977).

애착 연속성의 기반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형성하는 정신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이 있다(Bowlby, 1973). 초기 영아의 작동 모델은 위안과 안전감을 얻으려는 시도들이 표상된 도식으로 구성되지만, 이러한 특정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의 따뜻함, 반응성, 자기 가치감과 같은 좀 더 일반화된 신념 및 기대로 추상화된다. 그러나 내적 표상 자체는 유아의 신호에 양육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형태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Ainsworth, 1969).

하지만 최근 애착체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된다는 애착의 연속성 가설(Bowlby, 1969; Ainsworth, 1989)은 최근에 들어 이후의 경험을 통해 발전하기도 하고 유연성 있게 변화할 수 있음도 고려되며 애착의 의미와 중요성이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다(Waters & Cummings, 2000).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애착안정성은 아동과 어머니 상호간에서 서로 신뢰하며 어머니가 아동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 편안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

애착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애착(attachment)은 안정된 정도에 따라 안정적인 애착(secure attachment)과 불안정한 애착(insecure attach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의 애착의 질은 아동이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울기, 미소 짓기, 매달리기 등의 생후 초기에 아동이 보여준 애착행동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숙희, 1996).

안정된 애착의 아동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갖게 되며,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아동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의 질에 의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애착이 안정적인 아동은 자신이 유능하고 사랑 받는 존재라는 느낌과 함께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반면 애착이 불안정한 아동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부모 및 다른 성인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Bowlby, 1972; Bretherton, 1985).

3) 공격성의 개념 및 유형

공격성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uss(1951)는 대인간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로 유해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육체적 또는 심리적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결과로 남게 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하였다(Feshbach, 1970; Eron, 1980; 장미도, 1986). 이 정의는 행위자의 동기는 추론하지 않고 관찰 가능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공격성의 정의를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포함시켜 정의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관찰자가 행위자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배진수, 1985 재인용).

특히 아동의 경우 객관적으로 공격성의 의도나 동기를 추론하는 것보다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Dodge와 Coie(1987)의 개념을 토대로 공격성을 공격대상으로부터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 및 방어하기 위한 반응적 공격성과 아동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주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공격성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진다. Feshbach(1971)와 Buss(1978)는 공격성을 목적에 따라 공격 그 자체가 공격행동의 목적인 적대적 공격과 그 목적이 돈, 지위 및 권력 등으로 비공적인 도구적 공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Nesdale(1976)은 공격성을 분노형 공격과 비분노형 공격으로 구분하며, 여기에서 분노형은 좌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분노에 의한 공격성을 의미하고 비분노형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을 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박영신, 2004 재인용).

또한 Frodi 등(1977)은 공격성의 유형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및 간접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 대상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모든 반응을 의미하고,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직접적 공격성은 화나게 만든 사람 즉,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을 공격의 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간접적 공격성은 유발시킨 사람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하거나 일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김지현, 2005 재인용).

이후 Dodge와 Coie(1987)는 타당화 연구를 통해 공격성의 구성요소를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과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여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적 행동이며, 주도적 공격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격성이다.

위와 같이 학자에 따라 다양한 공격성의 유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Dodge와 Coie(1987)의 개념을 토대로 공격대상으로부터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 및 방어하기 위한 반응적 공격성과 아동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주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

1)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변인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크게 아동변인(child characteristics), 부모변인(parent characteristics), 그리고 상황적 변인(contextual factors)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속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속성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포함된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황혜원, 2004 재인용).

첫째, 아동변인으로 Belsky(1984)는 아동의 기질, 신체적 건강, 연령, 성별을 네 가지 주요 아동 변인으로 보았다.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운 경우 아동은 부모의 양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기여하며(Lytton, 1990), 또 아동의 질병이나 저체중이는 어머니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자신의 양육 능력에 의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Singer et al, 1996). 또한 Kochanska와 Askan의 연구(1995)에 의하면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부모의 요구에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둘째, 부모변인으로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의 초산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가 그의 자녀들을 위해 제공하는 양육행동의 질을 예측하는 변인들임을 지적하고 있다(Luster & Mittelstaedt, 1993; Menaghan & Parcel, 1991; Fox, 1995). 즉, 십대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나이가 좀 더 많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들에게 덜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uster & Mittelstaedt, 1993),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aghan & Parcel, 1991). Fox(1995)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고,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들이 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변인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은 배우자의 존재, 결혼의 질, 어머니의 고용상태, 사회적 지지 등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다(MyLoyd, 1990; Singer et al., 1996; Greenberger et al., 1994). Crockenberg(1988)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의 질은 그들의 원가족 경험과 관련이 있으나, 배우자와의 지지적인 관계는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Belsky(1997)는 어머니가 그의 친구, 이웃, 직계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이나 기관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 그의 자녀를 위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영향변인

아동의 애착에 대한 주요 영향변인으로는 성별, 출생순위, 양육행동등이 있다.

성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된 연구가 있는 반면(Beckwitz, 1972; LaFreniere & Sroufe, 1985; Park & Waters, 1989),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영지, 1994). 또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김지현, 2006). 이처럼, 아동의 성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생순위에 대한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다(이영환, 1993).

마지막으로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자녀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접근을 허용하며 일관되게 반응하며 민감한 것으로 연구되었다(Cox et al., 1992; Howes & Hamilton, 1992; Isabella & Belsky, 1991; 고경애, 1984; 이영환, 1993)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이나 반응들이 적절할수록 자녀는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김효심, 노명희, 1995).

3)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변인

공격성에 대한 영향변인으로는 크게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환경변인은 다시 가정변인과 학교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변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과 기질이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는 남성호르몬이 남아의 공격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 및 사회화가 남성을 보다 공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견해가 있다(김정원·김현주, 2007). 또한 아동의 기질 요소 중 하나인 반응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타인 정서를 잘 이해하고 분노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련, 1990; 임희수, 1994). Thomas와 Chee(1977)도 순한 기질의 아동은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고 쉽게 적응하며 긍정적 기분을 많이 나타내는 반면, 까다로운 아동은 돌보기 어렵고 대체로 부정적인 기분을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환경변인 중 가정변인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자녀들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장미도, 1997), 아버지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이나 공격성을 조장하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박성연, 2002). 결국 반복되는 강압적 가족관계가 공격성을 촉진하며,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 양육된 아동이 사춘기에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Patterson, 1986). 또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 연구를 살펴보면, 공격적 아동은 한부모에 의해 양육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Gagnon et al, 1995), 이혼 가족 아동의 공격성이 양부모 가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Kitson & Morgan; 1990, Lynn 1974). 또한 Eron(1984)등의 연구에 의하면 하류층이 중류층보다 더 많은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윤완기(1984)의 연구에서는 남자에게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고, 여자에게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게서 거부당한 아동은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타인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Coie et al., 1982; French & Wass, 1985), 또래집단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었다(Rubin et al., 1990).

마지막으로 환경변인 중 학교변인을 살펴보면, 또래거부(peer rejection), 학업성적(educational outcomes), 대인관계(interpersonal outcomes)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 아동 초기에서 또래거부와 공격성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지만 원인의 유형은 명확하지 않다(강명숙, 2007). 또 학업성적과 관련된 연구에서 Kupersmidt와 Coie(1997)는 공격적인 아동들이 학교에서 낙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학업 성적과 직업적 성취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공격성이 고학년에서의 낙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며 이들은 사회적 단서를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며 메시지를 전달자보다도 적대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Milich & Dodge, 1984). 또 공격적인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아동 초기의 또래 거부가 아동 후기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Altepeter & Korger, 1999)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반사회적 또래 집단의 우정은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임철중(2002)은 아버지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자율성이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Capaldi & Clark(1998)도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 중 양육행동은 양육신념이나 부부간 공격성을 통한 모델링효과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3.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1)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아동이 성장하면서 최초로 접하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Eron, 1963; Sears, 1965; 박혜경, 박성연, 2002).

부모가 거부적인 양육행동과 체벌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의 아동일수록 공격성을 보이며(Olweus, 1980), 부모의 배척, 신체적 처벌, 강압적 명령과 거부, 무관심 즉 감독의 부재,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행동은 공격성, 비행과 같은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 및 내면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Hart et al., 1998). 또 Scott-Litter & Holloway(1992)는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Rey와 Plapp(1990)에 의하면 공격적 행동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를 애정이 없고 간섭이 심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부모의 양육행동 중 신체적인 벌, 거부적인 태도, 애정결핍, 무관심, 자녀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및 권위주의적, 비밀관적 태도는 자녀의 높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Martin, 1976). 국내연구에서도 부모가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공격성 아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며(김민정 · 도현심, 2001), 양육행동이 폭력적이거나 통제적인 경우에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보였다(최선이, 2003).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지닌 부모의 자녀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으로 만들며, 또한 부모에게 거부, 무시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 되기 쉽다(이정옥, 2004).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공격성간의 관계

Bowlby(1973)는 아동의 애착욕구가 거부당하면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Turner(1991)에 의하면 애착이 안정적인 아동에 비해 애착이 불안정한 아동은 공격적, 파괴적, 독단적, 통제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공격적 행동을 포함한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nstantino(1995)는 어릴 적 불안정 애착관계는 아동의 비정상적 공격적 행동 발달의 소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Greenberg & Speltz(1988)는 공격적인 애착행동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이 아동들에게 공격행동은 애착인물과 가까워지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아동기 공격

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한상우, 안정희, 한선호, 1997),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애착안정성은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나 타인과의 관계 등에서 기초가 되는 아동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 소재 두 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남·여 339명(남아 158명, 여아 181명)이었다.

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두 곳을 임의 선정 후,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400부중 351부가 회수(회수율 88%)되었으며, 이 중 응답정도가 충분한 질문지 339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 후기의 아동이 청소년기의 아동보다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문미영, 2001)와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이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가능하기에 아동 자신이 경험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잘 보고할 수 있다는 이론을 근거로 하였다(이은주, 1999). 또한 아동발달상 12세 전후가 공격성이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Trembley, 2000). 본 연구의 아동 및 대상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 및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1)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느냐가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문경주 · 오경자, 2002; 정문자 · 김문정, 2004)에 근거하여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지각하는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Schaefer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 개발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과 Pumroy(1960, 1966)의 자녀양육행동척도, Slater와 Power(1987)의 양육행동의 차원, Cornell Parent Behavior Description의 원형인 Bronfenbrenner의 부모 양육행동질문지와 Roe & Siegelman(1963)의 부모자녀관계 질문지, 그리고 Becker의 양육차원 연구들을

<표 1> 아동 및 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n=339)

| 변인 | 범주 | N | % |
|--------------|-------------|-----|------|
| 아동의 성별 | 남자 | 158 | 46.6 |
| | 여자 | 181 | 53.4 |
| | 무응답 | 0 | 0 |
| 아동의 출생순위 | 첫째 | 175 | 51.6 |
| | 둘째 이상 | 160 | 47.2 |
| | 무응답 | 4 | 1.2 |
| 아동 종교유무 | 유 | 236 | 69.6 |
| | 무 | 101 | 29.8 |
| | 무응답 | 2 | 0.6 |
| 어머니 연령 | 40세 미만 | 158 | 46.6 |
| | 40세 이상 | 169 | 49.9 |
| | 무응답 | 12 | 3.5 |
| 아버지 연령 | 40세 미만 | 71 | 20.9 |
| | 40세 이상 | 257 | 75.8 |
| | 무응답 | 11 | 3.2 |
| 어머니 학력 | 고등학교 이하 | 101 | 29.8 |
| | 대학교 이상 | 219 | 64.6 |
| | 무응답 | 19 | 5.6 |
| 아버지 학력 | 고등학교 이하 | 70 | 20.6 |
| | 대학교 이상 | 243 | 71.7 |
| | 무응답 | 26 | 7.7 |
| 부모 직업유무 | 아버지만 직업 있음 | 128 | 37.8 |
| | 부모 모두 직업 있음 | 195 | 57.5 |
| | 무응답 | 16 | 4.7 |
| 모 종교유무 | 유 | 221 | 65.2 |
| | 무 | 114 | 33.6 |
| | 무응답 | 4 | 1.2 |
| 부 종교유무 | 유 | 181 | 53.4 |
| | 무 | 153 | 45.1 |
| | 무응답 | 5 | 1.5 |
| 가족형태 | 한부모 | 32 | 9.4 |
| | 양부모 | 302 | 89.1 |
| | 무응답 | 5 | 1.5 |
|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 | 상류층 | 125 | 36.9 |
| | 중류층 | 174 | 51.3 |
| | 하류층 | 33 | 9.7 |
| | 무응답 | 7 | 2.1 |

참고하여 박영애(1995)가 제작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기존의 문항을 안면타당도에 의해 문항수를 80문항에서 42문항으로 축소하여 예비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문항일치도 분석을 통해 15문항을 선정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제재·거부적 양육행동(10문항)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5문항) 각각 0.83, 0.81로 나타났다.

문항은 자녀에 대한 모양육행동의 주요차원들에 걸친 다양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이 자신과 모의 평소 행동을 생각하며 그것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임을 의미한다.

주요 해당 문항으로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아동에 대한 비난, 부정적 표현, 무시, 비하, 억압 및 침해적 개입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는 아동에 대한 무책임, 무관심 및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행동을 포함하였다.

2) 애착안정성 척도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 IPPA R)를 번안 및 수정한 옥정(1998)의 도구 중 어머니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일차적으로 예비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후 신뢰도 검사를 통해 신뢰도가 적합하지 않은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감과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만을 선별하여 총12문항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0.92로 나타났다.

IPPA-R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토대로 아동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 척도는 Crick와 Grotpeter(1995)의 공격성 정의와 Schwartz 등(2000)의 공격성 척도를 참고로 제작된 아동용 질문지를 정인선(2006)이 보완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복된 문항은 제외한 후 40문항으로 예비조사하였다. 예비조사 후 문항일치도를 통해 총 21문항으로 축소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반응적 공격성(14문항)과 주도적 공격성(7문항)이 각각 0.83, 0.75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의 문항으로는 '나는 화가 나면 상대방을 때린다.', '나는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이 나빠져서 화를 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도적 공격성의 문항으로는 '나는 가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치고 부수고 때리는 영화나 게임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조사 절차

1) 예비조사

아동이 지각한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 및 공격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2007년 6월~7월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6학년 32명, 기타지역 8명(잠실 4부, 충남 2부, 전남 2부)으로 총 4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은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수정하고, 특히 문항수가 많은 부분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애착 및 공격성 척도 모두 문항일치도를 통해 문항수를 축소하고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에 앞서 초등학교 교감과 부장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 실시 기간, 실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 요청하였다.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한 일시는 2008년 4월 2일~4월 10일이며,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두 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아동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분석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 분석 대상 및 분석

배포된 설문지 총 400부 중 351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 중 질문지의 응답정도가 충분한 339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 및 공격성의 수준을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정적 양육행동, 애착 및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반응적공격성과 주도적공격성에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의 수준

본 연구에서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의 수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각각 1.87(SD=0.58)와 1.68(SD=0.57)로,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의 평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착안정성의 평균은 3.02(SD=0.69)로 나타났으며,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은 각각 2.04(SD=0.51)과 1.96(SD=0.58)로 반응적 공격성의 평균이 주도적 공격성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변인에 따른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의 차이

1) 아동변인에 따른 아동변인에 따른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표 2>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339)

| 변 인 | 가능범위 | M(SD) |
|-------------|-------|------------|
|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 10~40 | 1.87(0.58) |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 5~20 | 1.68(0.57) |
| 애착안정성 | 12~48 | 3.02(0.69) |
| 반응적 공격성 | 14~48 | 2.04(0.51) |
| 주도적 공격성 | 7~28 | 1.96(0.58) |

<표 3>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 변 인 | 성 별 | N | M(SD) | t |
|-------------|-----|-----|------------|---------|
|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 남 | 158 | 1.92(0.58) | 1.49 |
| | 여 | 181 | 1.82(0.57) | |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 남 | 158 | 1.64(0.65) | -1.02 |
| | 여 | 181 | 1.71(0.49) | |
| 애착안정성 | 남 | 158 | 3.00(0.67) | -0.53 |
| | 여 | 181 | 3.03(0.71) | |
| 반응적 공격성 | 남 | 158 | 2.08(0.53) | 1.46 |
| | 여 | 181 | 2.00(0.48) | |
| 주도적 공격성 | 남 | 158 | 2.10(0.61) | 4.22*** |
| | 여 | 181 | 1.84(0.52) | |

p<.01, *p<.001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주도적 공격성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4>), 주도적 공격성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아동의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부모변인에 따른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의 차이
부모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결과에서는

<표 4> 아동의 종교유무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 변 인 | 성 별 | N | M(SD) | t |
|---------------|-----|-----|------------|-------|
|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 | 유 | 236 | 1.89(0.60) | 1.24 |
| | 무 | 101 | 1.81(0.51) | |
|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 유 | 236 | 1.67(0.45) | -0.25 |
| | 무 | 101 | 1.69(0.78) | |
| 애착안정성 | 유 | 236 | 3.01(0.65) | -0.14 |
| | 무 | 101 | 3.02(0.77) | |
| 반응적 공격성 | 유 | 236 | 2.06(0.52) | 1.01 |
| | 무 | 101 | 2.00(0.48) | |
| 주도적 공격성 | 유 | 236 | 2.01(0.61) | 2.05* |
| | 무 | 101 | 1.87(0.51) | |

*p<.05

<표 5> 어머니 학력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 변 인 | 학 력 | N | M | SD | t |
|---------------|---------|-----|------|------|--------|
|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 | 고등학교 이하 | 101 | 1.94 | 0.60 | 1.61 |
| | 대학교 이상 | 219 | 1.82 | 0.56 | |
|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 고등학교 이하 | 101 | 1.64 | 0.42 | -0.66 |
| | 대학교 이상 | 219 | 1.68 | 0.62 | |
| 애착안정성 | 고등학교 이하 | 101 | 2.91 | 0.68 | -2.03* |
| | 대학교 이상 | 219 | 3.08 | 0.69 | |
| 반응적 공격성 | 고등학교 이하 | 101 | 2.01 | 0.46 | -0.53 |
| | 대학교 이상 | 219 | 2.04 | 0.51 | |
| 주도적 공격성 | 고등학교 이하 | 101 | 2.02 | 0.55 | 1.38 |
| | 대학교 이상 | 219 | 1.92 | 0.57 | |

* p<.05

<표 6> 아버지 학력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 변 인 | 학 력 | N | M(SD) | t |
|---------------|---------|-----|------------|---------|
|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 | 고등학교 이하 | 70 | 1.98(0.54) | 1.95 |
| | 대학교 이상 | 243 | 1.83(0.58) | |
|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 고등학교 이하 | 70 | 1.68(0.46) | 0.26 |
| | 대학교 이상 | 243 | 1.66(0.60) | |
| 애착안정성 | 고등학교 이하 | 70 | 2.80(0.76) | -3.15** |
| | 대학교 이상 | 243 | 3.09(0.65) | |
| 반응적 공격성 | 고등학교 이하 | 70 | 1.97(0.44) | -1.20 |
| | 대학교 이상 | 243 | 2.06(0.51) | |
| 주도적 공격성 | 고등학교 이하 | 70 | 2.09(0.59) | 2.09* |
| | 대학교 이상 | 243 | 1.93(0.56) | |

* p<.05, ** p<.01

<표 7> 가족형태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 변 인 | 가족형태 | N | M(SD) | t |
|---------------|------|-----|------------|--------|
|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 | 한부모 | 32 | 1.89(0.52) | 0.24 |
| | 양부모 | 302 | 1.86(0.58) | |
|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 한부모 | 32 | 1.71(0.49) | 0.26 |
| | 양부모 | 302 | 1.68(0.58) | |
| 애착안정성 | 한부모 | 32 | 2.77(0.56) | -2.18* |
| | 양부모 | 302 | 3.05(0.70) | |
| 반응적 공격성 | 한부모 | 32 | 2.12(0.54) | 0.86 |
| | 양부모 | 302 | 2.03(0.50) | |
| 주도적 공격성 | 한부모 | 32 | 2.08(0.68) | 1.15 |
| | 양부모 | 302 | 1.95(0.57) | |

*p<.05

<표 8>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변인들 의 차이

| 변 인 | 경제수준 | N | M(SD) | F | Duncan |
|---------------|------|-----|------------|-------|--------|
|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 | 상류층 | 125 | 1.79(0.58) | 3.35* | a |
| | 중류층 | 174 | 1.88(0.57) | | a b |
| | 하류층 | 33 | 2.07(0.55) | | b |
| 허용 · 방임적 양육행동 | 상류층 | 125 | 1.60(0.40) | 1.83 | a |
| | 중류층 | 174 | 1.71(0.47) | | a |
| | 하류층 | 33 | 1.77(1.25) | | a |
| 애착안정성 | 상류층 | 125 | 3.14(0.68) | 3.85* | a |
| | 중류층 | 174 | 2.95(0.69) | | a b |
| | 하류층 | 33 | 2.86(0.69) | | b |
| 반응적 공격성 | 상류층 | 125 | 2.00(0.51) | 0.82 | a |
| | 중류층 | 174 | 2.04(0.49) | | a |
| | 하류층 | 33 | 2.12(0.58) | | a |
| 주도적 공격성 | 상류층 | 125 | 1.88(0.56) | 2.43 | a |
| | 중류층 | 174 | 2.00(0.58) | | a |
| | 하류층 | 33 | 2.09(0.63) | | a |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5>, <표 6>),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애착안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는 애착안정성과 주도적 공격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와 애착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변인 중 부모의 직업유무와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3) 가족변인에 따른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의 차이

가족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선 가족의 형태를 한부모와 양부모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결과(<표 7>),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양부모 아동이 한부모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8>), 제재 · 거부적 양육과 애착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경제수준을 하류층이라고 지각한 경우가 상류층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제재 · 거부적이라고 인식하며,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후 검증결과 집단간의 차이는 상류층과 하류층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표 9>에서 보듯이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r=-.41$) 나타났고, 아동의 공격성과도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r=.53$)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당히 낮은 부적 상관관계($r=-.15$)가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 변인의 관계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신뢰감($r=-.48$) 및 의사소통($r=-.48$)과는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반응적 공격성($r=.39$) 및 주도적 공격성($r=.42$)과는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허용·방임적 양육과 아동의 신뢰감($r=.09$) 및 의사소통($r=.07$)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r=.32$) 및 주도적 공격성($r=.30$)과의 관계는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신뢰감($r=-.05$), 의사소통($r=-.11$)과 반응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주도적 공격과 신뢰감($r=-.21$), 의사소통($r=-.21$)과는 비교적 낮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9>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N=339)

| | 부정적 양육행동 | 애착안정성 |
|-------|----------|--------|
| 애착안정성 | -.41** | |
| 공격성 | .53** | -.15** |

** p<.01

4.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1) 인구사회학적변인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모애착안정성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변인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의 변인 중에서 아동의 반응적공격성에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모종교와 부종교의 VIF계수가 각각 11.82, 12.25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변인들을 제거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번째 단계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난 부모종교를 제외한 아동, 부모 및 가족변인,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변인은 총 3개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B=-.36, p<.001$)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고, 제재·거부적 양육행동($B=.35, p<.001$)과 성별($B=-.11, p<.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 R^2 은 24.3%였다.

두번째 단계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은 모두 제외하고 유의한 변인인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성별만을 투입하여 아동의 반응적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표 10>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의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N=339)

| | 부정적 양육행동 | | 애착안정성 | |
|-------|----------|-------|--------|--------|
| | 제재·거부 | 허용·방임 | 신뢰감 | 의사소통 |
| 애착안정성 | | | | |
| 신뢰감 | -.48** | .09 | | |
| 의사소통 | -.48** | .07 | | |
| 공격성 | | | | |
| 반응적 | .39** | .32** | -.05 | -.11 |
| 주도적 | .42** | .30** | -.21** | -.21** |

** p<.01

<표 11>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39)

| 변인 | 반응적 공격성 | |
|----------------|-----------|---------|
| | B | β |
| 성별(여) | -.067 | -.066 |
|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 .325 | .368*** |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 .272 | .305*** |
| 회귀상수 | 1.013 | |
| F | 36.624*** | |
| R ² | .247 | |

*** p<.001

<표 12> 아동의 주도적공격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39)

| 변인 | 주도적 공격성 | |
|----------------|-----------|----------|
| | B | β |
| 성별(여) | -.243 | -.209*** |
|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 .387 | .383*** |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 .297 | .291*** |
| 회귀상수 | .873 | |
| F | 46.540*** | |
| R ² | .294 | |

***p<.001

펴보았다(<표 11>). 그 결과 투입한 세 개의 변인 중에서 제재·거부적 양육행동($B=.33, p<.001$), 허용·방임적 양육행동($B=.27, p<.001$)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설명력 R^2 은 24.7%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이며, 다음으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제재·거부적,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2) 인구사회학적변인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애착안정성이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변인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의 변인 중에서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모종교와 부종교간의 공선성이 나타나(모종교: VIF 11.82, 부종교: VIF 12.25) 이 변인을 제거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번째 단계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난 부모종교를 제외한 아동, 부모 및 가족변인,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변인은 총 3개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B=-.36, p<.001$)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고, 제재·거부적 양육행동($B=.32, p<.001$)과 성별($B=-.30, p<.0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 R^2 은 29.5%였다.

두번째 단계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은 모두 제외하고 유의한 변인인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성별만을 투입하여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표 12>). 그 결과 투입한 세 개의 변인 중에서 제재·거부적 양육행동($B=.39, p<.001$), 허용·방임적 양육행동($B=.30, p<.001$), 성별($B=-.24, p<.001$)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 R^2 은 29.4%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이며, 다음으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아동의 성별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주도적 공격성에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각각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의 문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학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변인의 수준

아동이 지각한 모의 제재·거부적, 허용·방임적 양육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아동, 부모 및 가족 변인에 따른 차이

아동변인으로 성별, 출생순위 및 종교유무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주도적 공격성에서 남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반응적 공격성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다수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남아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와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을 표현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Doyle & Biaggio, 1981; 김선숙, 2007)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공격대상으로부터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 및 방어하기 위한 반응적 공격성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동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주도적 공격성에서만 성별의 차이가 나타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종교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종교를 갖고 있는 아동의 경우가 무교의 아동보다 주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교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나타났다. 베르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교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논문 24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 77%의 논문이 종교와 심리적 건강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고, 6%가 부적 관계, 17%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83%의 논문이 종교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제석봉, 2002). 즉,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나 아직 종교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후 학문간의 연계를 통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아동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의 애착의 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 학력도 대졸이상의 경우 아동은 모와 애착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애착의 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변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가족변인으로 가족형태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부모의 경우 애착안정성은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적인 아동은 한부모에 의해 양육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연구결과(Gagnon et al, 1995)와는 다르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이혼가정의 자녀와 양친부모 가정 사이에 공격성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삼연, 2002; 이에재, 1999)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혼 또는 사별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구별하여 연구해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이 하류층일 경우 아동은 모의 양육행동을 제재·거부 양육행동으로 지각했으며, 아동의 애착안정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경제수준은 자녀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홍순혜, 2004)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아동의 공격성과 경제 수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실제 빈곤의 정도와는 다르게 보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는 부모보고를 함께 조사하여 실제 아동의 경제수준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간의 관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아동의 공격성과는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당히 낮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신뢰감 및 의사소통과는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과도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허용·방임적 양육과 아동의 신뢰감 및 의사소통과는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의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과의 관계는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 애착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신뢰감, 의사소통과 반응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주도적 공격과 신뢰감, 의사소통과는 비교적 낮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낮추고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부정적 훈육방식은 아동의 공격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Hart et al, 1998; Maccoby & Jacklin, 1980)와 일치한다. 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적 표현의 관계를 보고한 여러 연구들(Eisenberg, 1999; Gottman & Kaltz, 1989; McFadyen-Ketchum, 1996; 양연숙·조복희,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교육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4)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순서로 나타났으며,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성별의 변인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결과의 차이점으로 아동의 성별은 주도적 공격성에만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점으로는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데는 주로 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성별은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에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므로 부모교육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았다.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변인,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및 애착안정성이었으며 결과,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 전체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 순서로 나타났고,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 전체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모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아동의 공격성에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아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애착안정성보다 모의 양육행동이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연구들과는 달리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애착과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며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지만, 인구사회학적변인중 아버지 학력에 따른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아동의 모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볼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부부관계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동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주도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교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써 이후에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종교와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모든 질문지를 아동의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아동이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의 보고를 절충하여 오차의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고미영(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 51-75.
 곽소현(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복지학회**, 22(2), 149-166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김선주(2001).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선희(2006). 체벌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아동 부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형(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능력조절 및 공격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경·권희경·전제아(2001). 부모 양육행동 및 아동의 심리적 제반 변인이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 경로분석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3), 87-105.
 김원경·권희경·전제아(2006).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간의 구조모델. **한국 아동학회지**, 27(3), 67-79.
 김은이(2007). **취학전 이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혜(2005). 부모부재아동과 부모재아동의 대상관계와 애착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지**, 16(2), 85-93.
 김지현(2005).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 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정원(2001).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 적응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란·이영숙·전귀연(2003). **현대가족학**. 서울:신정.
 박경희(2006). 부와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서정(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 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영미(199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지**, 5(1), 49-64.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2004).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적응의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욱(2006). **어머니의 대상관계 및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식(2002). **현대통계학**. 다산.
- 박혜련(2003).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행동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자(1995). **발달 심리학**. 학지사.
- 송호현(2004). **고등학생의 애착유형과 공격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 최규련(1999).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하우.
- 손충기 · 백영균 · 박정환(2006). **SPSS**. 학지사.
- 신금주(1994). **국민학교 아동에서의 지각된 부모양육 태도와 부적응행동의 관계**.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1997). **아동 · 청소년기 장애 : 삶의 문제와 적응의 심리학**. 법문사.
- 오성심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11(1),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우수명(2007). **SPSS 14.0**. 인간과 복지.
- 유계숙 · 최연실 · 성미애(2003).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하우.
- 유영미(2006).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 김순옥, 김경신(2008).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은영(2005). **정서적 애착대상의 유무와 청소년 우울과의 관계 연구 : 종교 및 애완 동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능력간의 관계**. 효성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 민하영(2004). 학력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영화 · 유가효(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1), 89-105.
- 이숙 · 최정미(2006).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위축 및 자기유능감. **한국지역사회생 활과학회지**, 17(2), 69-79.
- 이재연 · 서영숙 · 이명조(1999). **아동상담과 치료**. 양서원.
- 전선영(2000).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아동의 사회정보처리와 행동 특징**.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선(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 유계숙(2003). **가족관계**. 서울 : 신정.
- 정현정(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의 질이 남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2002). **종교적 대처와 정신건강**. **한국종교학회지**, 26, 25-42.
- 최선이(2003). **아동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자(2006).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관계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가족관계학회(1999). **가족학**. 하우.
- 한상우 · 안정희 · 한선호(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정신병리 연구**. 순천향의대논문집, 3(2), 613-625.
- 한세리(2006). **남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나원(2001). **아동의 우울과 애착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선이(2005).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원(2004).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 인들에 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8(2004.12), 157-180.
- 홍두승(2005). **사회조사분석**. 다산.
- Achenbach, T.M. & Edelbrock, C.S.(1981). Behaviou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1, Serial No. 188).
- Ainsworth, M.D.S.(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Ainsworth, M.D.S.(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1, 1-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owlby, J.(197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Basic Books*.
- Buss, K. A. & Goldsmith, H. H.(1998). Fear an regulation in infancy : Effects on the temporal dynamics of affective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69, 359-374.
- Cohn, D. A.(1990). Child-motherattachment of six-year 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Collins, N.L. & Read, S.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Dodge, K.A. & Coie, J.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lay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Fishbein, M., & Aizen, I. B. (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Fonagy, P. 저 · 반건호역 (2005). **애착이론과 정신분석**. 빈센트.

Holmes, J. 저 · 이경숙역 (2005). **존불비와 애착이론**. 학지사

Lyon-Ruth, K. (1996). Attachment Relationship among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 *The role of disorganized early attachment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73.

Maccoby, E.,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M. Hetherington (Ed.), P.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1-101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9, 226-235.

Steinberg, L., Lamborn, S.,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Patterson, G. R., Babara, D., DeBaryshe,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Thomas, A., & Chee,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Tremblay, R.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Waters, E., & Cumming, E.M. (2000). A secure base from which to explore close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1(1), 164-172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 · problem children :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동아일보. www.donga.com.

- 접수 일 : 2009년 01월 12일
- 심사 일 : 2009년 02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20일